



HELLO! My name is Sister Mary Halloran. I present myself to you as a member of the upper-quarter of the United States Province directory. Translation---I am OLD!! I was born on Easter Sunday, April 17, 1927, at Roselia Foundling and Maternity Hospital in Pittsburgh, Pennsylvania, second of four siblings, also born there. This hospital was staffed by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and I like to think that one of the sister nurses helped to swaddle and care for me during my ten-day stay.

My early education, grades one through three, was under the direction of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at Our Lady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Parish (Marian School) in Brushton, PA. That school closed and I then attended Mother of Good Counsel School, also located in Brushton, from grades four through eight, under the tutelage of the Apostles of the Sacred Heart Community. I went to public high school and worked for four years, prior to entering the Community of the Sisters of Charity.

The thought of a vocation to religious life filtered through my mind over the years and became firm when I was twenty-two years of age. I was drawn to the Sisters of Charity, no doubt, because of my early years of education and probably because I had a deceased maternal great aunt (Louis Regina Mattingly, SC 1890 r.i.p.) and an active maternal second cousin (David Mary Leonard, SC 2007 r.i.p.) who preceded me in Community. I entered on September 8, 1949, taught children of the elementary school level in the dioceses of Altoona, Greensburg, Pittsburgh, Pennsylvania and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DC. In 1974, I began ministry at the Matrimonial Tribunal of the Greensburg Diocese. In 2003, after twenty-five years, I retired from the Diocese of Greensburg and then volunteered at DePaul Center, the Administrative Offices of the Sisters of Charity.



After a lifetime of blessings and, in anticipation of my ninetieth birthday, what do I hope for now? I dream of a future where the love and concern of others will support me in my powerlessness, embrace me in my frailty, sing at my funeral and remember me in prayerful memory as I join the Company of Charity in heaven.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할로란 수녀(Sister Mary Halloran)입니다. 제 이름은 미국 관구 회원명단에서 한참 위쪽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이가 많다는 것이지요! 저는 1927 년 4 월 17 일 부활 대축일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4 남매 중 둘째인데 저희는 모두 로셀리아 고아원-산부인과 병원(Roselia Foundling and Maternity Hospital)에서 태어났어요. 이 병원에서 우리 수녀님들이 일하고 있었지요. 제가 태어나 병원에 있는 열흘 동안 우리 수녀님들 중의 한 분이 저를 포대기에 싸고 돌보아 주셨다고 믿고 싶어요.

초등학교 1 학년에서 3 학년까지는 펜실베니아 주 브러쉬톤의 마리안 초등학교(Marian School, Our Lady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본당 운영)에서 우리수녀님들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착한 의견의 모후 초등학교(Mother of Good Counsel School)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4 학년에서 8 학년까지는 성심의 사도회(the Apostles of the Sacred Heart Community) 수녀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답니다. 공립 고등학교를 다녔고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 4 년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성소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몇 년 동안 생각했었는데 22 살이 되어서 마음을 굳혔지요. 그리고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사랑의 씨튼 수녀회로 이끌렸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수녀님들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돌아가신 이모할머니 루이스 레지나 매팅리 수녀님 (Sister Louis Regina Mattingly, SC 1890 r.i.p.)과 저보다 먼저 입회한 둘째 외사촌 데이비드 메리 레오나드 수녀님 (David Mary Leonard, SC 2007 r.i.p.)의 영향 때문이지요. 저는 1949 년 9 월 8 일 입회하여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의 그린스버그, 알투나 교구와 워싱턴 DC 대교구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74 년부터 그린스버그 교구 법원에서 사도직을 시작했습니다. 2003 년 25 년동안 일해왔던 교구의 사도직에서 은퇴를 하고 드폴 센터의 수도회 행정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평생 복된 삶을 살고 아흔 번째 생일을 기다리며 저는 지금 무엇을 희망하고 있을까요? 제가 꿈꾸는 미래는 다른 이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무력해진 저를 지탱하고 노쇠한 저를 받아 들여주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러주며 제가 하늘나라의 사랑의 수녀들과 함께 할 때 기도 안에서 저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